

저자
(Authors) 이동매

출처
(Source) [한국학연구 31](#), 2013.12, 203-226(24 pag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31](#), 2013.12, 203-226(24 pages)

발행처
(Publisher)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81274>

APA Style 이동매 (2013). 모란 전래시기를 통해서 본 선덕여왕의 모란일화와 화왕계. 한국학연구, 31, 203-22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0/08/07 09: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모란 전래시기를 통해서 본 선덕여왕의 '모란일화'와 「화왕계」

이동매*

【 목 차 】

1. 서론
2. 중국 모란꽃 발전사
3. 선덕여왕 모란일화와 모란
4. 「화왕계」와 모란
5. 선덕여왕 모란일화와 「화왕계」: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당태종이 진평왕에게 모란꽃 그림과 씨를 보내왔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일연의 『삼국유사』에, 그리고 박인량의 『수이전』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설총의 「화왕계」에서 '화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많은 연구자가 「화왕계」에서 나온 화왕을 모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설총의 「화왕계」를 자세히 읽어 보면 그 중에 등장하는 화왕이 모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화왕계」 원문에 화왕이라는 단어만 등장하고 모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화왕계」에서 등장하는 화

* 인하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

왕은 남성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모두 모란은 여성성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란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9세기에 이르러야 모란이 이백 그리고 피일휴(皮日休)등의 시를 통해 화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691년에 신라에서 모란이 어떻게 ‘화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화왕계」는 풍간우화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화왕계」에서 나타난 화왕을 모란이 아니라, 화지왕(花之王)으로 본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이 왜 「화왕계」의 화왕을 모란으로 인식하였을까? 그것은 선덕여왕 모란일화 때문일 것이다. 선덕여왕 모란 일화와 「화왕계」는 모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선덕여왕 모란일화는 『수이전』 그리고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수이전』은 박인량이 증보한 것이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저자가 모두 고려시대 사람이다. 그들이 살았던 고려시대에 중국에서는 모란이 화왕이 된 지 오래고 한국에서는 널리 인식되었다. 설총이 「화왕계」에서 화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고려시대 문인들에게 화왕은 당연히 모란이다. 이는 ‘화왕’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긴 역사적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모란, 화왕, 선덕여왕지기삼사, 화왕계

논문투고일: 2013.09.13 / 심사완료일: 2013.10.02 / 게재확정일: 2013.10.04

1. 서론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당태종이 진평왕에게 모란꽃 그림과 씨를 보내왔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그 시기를 선덕여왕 시대로 바꿨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유사한 이야기는 『수이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일화들에서 선덕여왕이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모란의 향기가 없음을 간파한다고 서술함으로써 선덕여왕의 뛰어난 지혜를 강조한다. 이에 대하여 조용진은 당시 중국에는 모란꽃 그림에 나비를 곁들이지 않는 법식이 있기 때문에 선덕여왕의 해석이 사실 그림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라고 해석하였다.¹⁾ 이에 근거하여 강제철과 신종원 등은 더 나아가 선덕여왕 모란일화는 조작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²⁾ 그러나 그것은 모란일화의 진실성에 대한 회의이지, 선덕여왕 시기에 모란이 전래왔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선덕여왕 모란일화의 진실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것은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경에 나온 「화왕계」라는 작품 때문일 것이다. 설총의 「화왕계」에서 ‘화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현재는 상식적으로 화왕은 모란을 가리키는 것이다. 설총 시대에 ‘화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선덕여왕대 모란이라는 꽃이 존재한 것 같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선덕여왕 모란일화를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일찍이 문일평은 “기이한 것은 아무리 우연이라 해도 일찍 善德의 明敏을 나타내던 모란이 또 다시 薛聰의 공간이 되어 神文을 돕게 되니 모란과 신라왕실과는 어찌면 저렇듯이 깊은 인연을 가졌을까”³⁾라고 하면서 「선덕여왕 지기삼사」와 「화왕계」를 연결시켰다.

1)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1989, 94~95쪽.

2) 강제철, 「선덕여왕 지기삼사 설화의 연구」, 『삼국유사의 문화적 탐구』, 이회, 2008, 243~308쪽;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 일지사, 2004, 110~146쪽.

3) 문일평, 「史上에 나타난 꽃 이야기」, 『호암전집』 3, 조선일보사, 1994, 287쪽.

그리고 그는 「화왕계」에서 나타난 화왕을 모란으로 보았다. 이후 연구자들은 모두 이 주장을 이어받았다. 그 근거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모란일화를 열거한다. 이렇게 「화왕계」에서 등장하는 화왕이 모란이라는 것과 「선덕여왕 지기삼사」 모란 일화가 진실이라는 것은 서로를 증명하면서 성립된다.

문제는 선덕여왕시대에 모란꽃이 과연 신라에 유입되었느냐는 점이다. 문일평은 “모란이 한토에서 저 호사를 극하던 수양제 경부터 비로소 애상하게 되었고 당현종 시대에 이르러서야 널리 재배하게 되었은즉 이로 보더라도 진평왕 전에 있어는 도저히 수입되지 못하였을 것이다.”⁴⁾고 진평왕 때 모란꽃이 전래 오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진평왕 시대에 유입되지 못한 모란은 그의 딸 선덕여왕 시대에 바로 전래될 수 있을까?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 후에야 당현종이 태어났는데 당현종 시대에 성행하기 시작한 모란꽃이 어떻게 선덕여왕에게 보내줄 수 있었을까? 또한 설총은 「화왕계」라는 우화를 통해서 풍간을 했는데 그가 말하는 화왕은 과연 모란꽃인가? 모란은 여성의 상징인데 남성 왕에게 비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란은 중국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꽃이다. 모란은 무측천(武則天, 624~705)에 의하여 관상용의 가치를 발견되고 황궁으로 이식되어 당현종(唐玄宗, 685~762) 시대에 이르러 성행되었다. 시기를 따지면 선덕여왕 때 모란이 전래 오는 가능성이 적으며 설총이 말하는 화왕은 모란일 가능성도 적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모란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선덕여왕 지기삼사」중의 모란일화의 진실성과 「화왕계」에서 등장한 화왕이 과연 모란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위의 책, 284~285쪽.

2. 중국 모란꽃 발전사

지금 화왕으로 인식되는 모란은 최초로 약재로 사용되었다. 한나라 때 쓴 『위무한대의간(威武漢代醫簡)』에서 모란을 울혈을 치료하는 약재로 기록되어있다. 남북조시기에 나온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에서 모란을 중상등(中上等)의 약재로 기술되고 있다. 약재로 사용된 모란은 야생화이며 관상용의 가치가 많지는 않다.

모란을 관상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하여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두 의견이 있다. 수나라 기원설은 『해산기(海山記)』라는 소설 때문이다. 문일평은 1939년에 “모란이 한토에서도 그 저 호사를 극하던 수양제 무렵부터 비로소 애상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청나라의 『패문운부(佩文韻府)』(1704~1713년 편찬)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패문운부』에서 수양제 때 이주(易州)에서 모란꽃 20주를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 출처는 『해산기(海山記)』라고 밝혀져 있다. 그러나 중국 곽소림(郭紹林) 교수는 『해산기』의 모든 판본을 확인한 후에도 모란에 관련된 기사를 찾지 못했다. 수양제가 서원(西苑)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지만 20주의 모란꽃 이야기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산기』는 당나라 때에 쓰인 소설이기 때문에 믿음성을 가졌으나, 곽소림은 『해산기』에서 당나라 황제의 이름을 휘(諱)를 피하지 않은 대신 송나라 황제의 휘를 피하고, 수나라 시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오기가 많다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소설은 당나라가 아니라 송나라 시대에 쓴 것이라고 밝혔다.⁵⁾ 따라서 관상용의 모란이 수나라 시기부터 재배되었다는 근거는 없어진다. 게다가 또한 수양제에 관하여 『수서·양제기상(隋書·楊帝記上)』과 『자치통감(資治通鑑)』 권18에서 수양제가 “가목이초(嘉木異草)”를 구해 서원이라는 어화원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모란꽃에 대하여 언

5) 郭紹林, 「舊題唐代無名氏小說『海山記』著作年代及相關問題辯證」, 『洛陽工學院學報』, 1998.2, 57~62쪽.

급하지 않았다. 언급하지 않는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모란꽃이 없었다. 둘째, 있었지만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특별히 기록하지 않는 것은 모란꽃이 국색천향(國色天香)의 화왕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란에 대하여 언급한 사람은 당나라 문인 단성식(段成式, 803~863)과 승상 서원여(舒元與, 791~835)이다. 단성식은 “내가 『수나라 종식법』 70권을 찾아봤지만 모란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니 모란이 수나라에서 꽃나무나 약재에 들지 않았음을 알겠다”⁶⁾고 수나라 때에 모란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서원여는 「모란부(牡丹賦)」에서 측천무후가 모란을 황궁으로 이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후(天后)의 고향은 서하이다. 거기서 여러 가지 꽃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란이 있었고, 모란꽃이 특이하였다. 천후는 화원의 부족함을 감탄하고 이를 이식하라고 명하였다.⁷⁾

‘천후’는 당나라 여왕 무측천을 가리킨다. 무측천의 행적으로 보면 그는 고향으로 내려간 것은 딱 한 번이었다. 그것은 660년에 당고종(唐高宗)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음력 2월 달에 갔다가 4월에 떠났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모란꽃이 피는 시간이다. 따라서 무측천이 고향에서 모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황궁으로 이식시킨 것으로 보인다.⁸⁾

무측천이 모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황궁으로 이식하여 당현종(唐玄宗, 685~756)에 이르러 모란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당현종 시기

-
- 6) 段成式 『酉陽雜俎』前集 卷19, 『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2000, 701쪽.
“成式檢隋朝種植法七十卷中初不記牡丹, 則知隋朝花藥中無牡丹”
- 7) 舒元與, 「牡丹賦」, 『全唐文』 卷727, 上海古籍出版社, 401쪽.
“天后之鄉西河也, 有眾香精舍, 下有牡丹, 其花特異, 天后歎上苑之有闕, 因命移植焉。”
- 8) 郭紹林, 「說唐代牡丹」, 『洛陽工學院報』, 2001. 3, 12~13쪽.

에 이르러 모란을 재배하는 원예사가 나타나고 그 중에 가장 이름난 원예사는 송선부(宋單父)이다. 그는 당현종의 명령을 받아 모란꽃을 많은 색깔로 재배하였다. “송인 선부는 자가 종유이며, 시를 잘 짓고 예술도 능통했다. 모란을 천 종류로 변화시켜 흰색과 빨간색이 아름다움을 다투게 했다. 황제는 그를 이산으로 불러 모란 만 주를 심게 하였다. 색깔이 서로 달라 황제는 금 천여 냥을 하사하였다.”⁹⁾ 이 설화를 통해서 당현종 시기에 모란을 관상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인공 재배를 통해서야 약재이었던 모란이 많은 색깔을 갖추게 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¹⁰⁾ 당나라 이전에 문헌이나 문학작품에서 모란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모란이 인공재배 거처기 전 단계여서 꽃이 아름답지 않아 널리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름도 없었던 모란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변신시켜주는 사람은 당현종이다. 그는 모란의 인공재배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 영역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천보(天寶, 당현종의 년호, 742~756) 초기 황궁 안에 있는 침향정(沉香亭)앞에 모란꽃이 피어 당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밤 새워 관상하였다. 그리고 당현종은 시인 이백(李白)을 명하여 세수의 시를 짓게 하였다. 그것은 「청평조(淸平調)」이다. 이후 모란은 황궁을 넘어 민간으로 퍼졌다. 『당국사보』에서 모란 관상의 성황을 묘사하고 있다.

경성 귀족들이 모란을 관상한지 30여년이 되었다. 늦봄마다 말과 가마들이 미친 듯 왕래하였는데 이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¹¹⁾

-
- 9) 柳宗元, 「宋單父種牡丹」, 『龍城錄』, 『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151쪽(『龍城錄』은 저자가 柳宗元이 아니라 송나라 초기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
- 10) 모란의 인공재배 과정에 대하여 아래 논문 참조.
茹冰, 「論唐代牡丹的引種, 推廣與興盛」, 陝西師範大學, 역사지리학 석사논문, 2005; 魏巍, 「中國牡丹文化的綜合研究」, 河南大學, 생태학 석사논문, 2009; 李樹桐, 「唐人喜愛牡丹考」, 『港台學者隋唐史論文精選』, 三秦出版社, 1990.

당현종은 양귀비의 형제인 양국충에게 모란꽃을 하사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모란은 황실을 넘어 황제의 가솔과 친족 및 귀족의 정원으로 퍼진다. 『당국사보』는 당무종 장경년간(唐穆宗長慶年間, 807~821)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전이라면 8세기말이다. 8세기 중반까지 황궁에 한하여 심었던 모란은 경성거리로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란은 민간으로 들어감에 따라 그 인식이 높아진다. 따라서 모란을 음송하는 시가 많아진다. 『전당시(全唐詩)』에 모란에 관한 시 140수, 사(詞) 2수를, 『전송시(全宋詩)』에 모란 시 263수, 사(詞)는 110수를 수록되어 있다.

3. 선덕여왕 모란일화와 모란

일연의 『삼국유사』 중의 「선덕왕지기삼사」조에 당태종(唐太宗, 599~649)이 선덕여왕(?~647)에게 모란꽃 그림과 씨를 보냈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당태종이 진평왕에게 모란 그림과 씨를 보냈다고 기술되고 있다. 『수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시기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당태종이 모란 씨와 꽃 그림을 보내왔다. 선덕여왕이 꽃을 보고 웃으며 좌우 신하들에게 말을 하였다. “이 꽃은 요염하고 귀티가 있어 비록 화왕이라고 불리나,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황제가 이것을 보낸 것은 짐이 여자로서 왕이 된 것을 빗댄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미묘한 뜻이 있도다.” 씨를 심어 꽃이 피기를 기다리니, 과연 향기가 없었다.

- 『수이전』, 「선덕왕」

11) 李肇 『唐国史补』上, 上海古籍出版社, 1957, 45쪽.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색깔로 그린 모란과 그 씨 서 되를 보내 왔다. 왕은 그 그린 꽃을 보고 말했다. “이 꽃은 절대로 향기가 없을 것이다.” 이내 씨를 뜯어 심어더니 그 꽃이 피었다가 떨어질 때에 과연 그 말과 같이 향기가 없었다.

- 『삼국유사』 권1 기이편, 「선덕왕 지기삼사」

전왕 때 당나라에서 온 모란 꽃 그림과 꽃씨를 덕만에게 보여더니 덕만이 말했다. “이 꽃은 비록 매우 아름답지만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네가 어찌 아느냐?” 그는 대답했다. “꽃은 그렸는데 나비가 없는 까닭으로 압니다. 대체로 여자에게 절세의 미모가 있으면 남자가 따르게 되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꽃이 아름답지만 그림에 또한 벌과 나비가 없사오니, 이는 반드시 향기가 없는 꽃 일 것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과연 말한 바와 같았다.

- 『삼국사기』 제5권 신라본기 제5 「선덕왕」

『수이전』,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모란일화의 시간이 약간 차이 나지만, 시기 문제를 떠나서 이 사료들은 덕만공주가 지혜가 있어 왕이 되는 자격을 갖추어져 있다고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용진은 당시 모란과 나비 같이 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덕여왕의 그림에 대한 무지로 해석한다.¹²⁾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모란이 그림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701년부터이다. 우선 모란의 재배시기를 따지면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모란 씨를 보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당태종은 649년, 선덕여왕은 647년에 세상을 떠났다. 무측천은 655년에 황후가 되어 권력을 가지고 660년경에 모란을 발견하여 황궁으로 이식하였다. 선덕여왕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나,

12)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1989, 94~95쪽.

당태종이 모란 그림과 모란 씨를 선덕여왕에게 보내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국가 간에 주고받는 선물들은 대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나 귀중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척천이 모란을 황궁으로 이식하고 당현종 시대에 모란이 성행되었다. 즉 당현종 시대에 이르러야 모란은 관상용의 명화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태종 시대에 모란은 약재로만, 게다가 진귀한 약재도 아닌, 중상등의 약재로 사용되는, 이름도 없는 꽃이었다. 따라서 당태종이 굳이 선덕여왕에게 관상용으로라도 인식되지 못한 모란 꽃 씨를 보내줄 이유가 없다.

『삼국유사』에서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색깔로 그린 모란”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흰색 모란은 당현종 시대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다.¹³⁾ 천보(天寶, 742~756)는 당현종의 연호이며 개원 초에 이르러도 기이한 경관으로 여겼던 흰색 모란은 647년에 세상을 떠난 선덕여왕에게 보내줄 가능성이 극히 적다.

또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그리고 『수이전』에서 모두 모란 그림을 보내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나라 때 모란은 그림에 들어간 것은 영태공주(永泰公主)의 묘지에서 확인되었다, 영태공주의 석관에 모란그림이 새겨져 있다. 무척천의 손녀인 영태공주는 701년에 세상을 떠났다. 무척천은 660년에 모란을 황궁으로 이식한 것을 염두에 두면, 그의 관에 모란그림이 나타난 것은 모란은 황실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세기 전에 모란은 황궁에서만 심기 때문에 황실 묘부터 들어간 것은 정상적이다. 8세기말에 이르러야 모란을 잘 그리는 화가 변란(邊鸞) 탄생했다. 이후 회화영역에 모란은 널리 퍼지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모두 “심어 보니 과연 향기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모란은 국색천향으로 알려

13) “得白牡丹一株，植於長安私第。天寶中，為都奇觀。”段成式『酉陽雜俎』前集卷19, 『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2000, 701쪽.

져 있어 그 향기가 매우 좋다는 것이다. 모란의 재배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아름다운 모양과 천하에서 제일가는 꽃향기로 화왕의 명성을 얻은 모란꽃을 향기 없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주기 위하여 일부러 향기 없는 모란을 재배할 것 같지도 않다. 모란은 국색천생이기 때문에 화왕의 위치로 오른 것이다. 당나라에서 정말로 신라로 모란을 보내왔다면, 그것은 모란이 화왕, 적어도, 국색천향으로 인식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렇다면 모란 일화는 어떻게 생겼을까? 당고조(唐高祖, 566~635)는 신라에 물품을 보낸 적이 있었다. “(진평)왕 43년(621년)에 신라가 물품을 바치자 당고조는 그 回賜로 국서, 그림, 병풍 및 비단 3백 필을 보내왔다.”¹⁴⁾는 것이다. 신종원에 따르면 이 단순한 사실은 『삼국사기』와 『수이전』을 거쳐 『삼국유사』 선덕왕 지기삼사중의 첫 번째 이야기 모란 일화로 발전된 것이다.¹⁵⁾

당태종을 굳이 끌어온 것은 당태종이 선덕여왕과는 시기가 같은 뿐만 아니라 당태종은 여왕인 선덕여왕을 비하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삼국사기』를 참조하면 당태종은 “너희 나라가 여자로서 임금을 삼았으므로 이웃 나라가 이를 멸시하며 마치 주인을 잃고 도적을 불러들여 편안한 세월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선덕여왕을 비하한 적이 있었다. 아무리 여왕이라 해도, 자신의 왕이 이러한 모멸당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따라서 당태종과 관련된 모란 이야기를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수이전』은 박인량이 증보한 것이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모란이 한참 유행한 시기라는 점이다. 모란은 고귀한 ‘화왕’이기 때문에 선덕여왕에게 비유하는 것이 너무나 적당하다. 즉 선덕여왕

1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평왕 43년조.

15)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읽기』, 일지사, 2004, 114쪽.

모란일화는 모란의 유행을 타서 선덕여왕 이야기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선덕여왕은 한국역사사상 최초의 여왕으로서 왕위에 오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신비화할 필요도 있다. 모란일화는 선덕여왕이 당태종의 피를 간파하고, 그 능력이 당태종을 뛰어넘는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왕은 중국의 성군(聖君) 못지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려시대 문인들이 모란꽃 일화를 통해서 선덕여왕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여왕으로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 같다.

4. 「화왕계」와 모란

신라 시대에서 사는 설총(薛聰)은 「화왕계(花王戒)」라는 우화를 남겼다. 「화왕계」는 신라 31대 신문왕 11년(691년)에 설총이 지은 것으로 『삼국사기』 권46 열전 설총조에는 「화왕계」로, 『동문선』 주의류에는 「풍왕서」란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설총이 임금이 지켜야 하는 도리를 화왕(花王)에 의탁하여 풍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화왕이라는 단어다. “옛날에 화왕이 처음 오니, 화왕을 향기로운 정원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써 보호했는데 때마침 삼춘[三春]을 당하여 예쁜 꽃이 피니 모든 꽃 중에서 유달리 뛰어났습니다.”¹⁶⁾ 후세의 연구자들은 관습적으로 ‘화왕’을 모란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⁷⁾ 『금호신화-화왕계』라는 책에서 원문을 무시한 채 원문에 있는 “昔花王之始來也”를 “옛날 이야기다. 꽃 임금이 처음 이 세상에 왔다.

16) 설총, 「화왕계」, 『삼국사기』 제46권 열전 제6: 김부식 편, 이제호 옮김, 『삼국사기』 3, 서울출판사, 1997, 417쪽.

“昔花王之始來也, 植之以香園, 護之以翠幕, 當三春而發艷, 凌百花而獨出”

17) 양광석, 「설총과 화왕계」, 『어문논집』 23집, 1982; 손정인, 「설총과 화왕계」, 『한민족어문학』 20집, 1991; 오상태, 「화왕계 연구」, 『어문학』 65집, 1998; 이윤호, 「서라벌 꽃나무 이야기」, 『숲과 문화』 10집, 2001.

모란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원문에 없는 모란을 임의로 추가해설하기도 한다.¹⁸⁾

그러나 「화왕계」 원문에 모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 장미를 가인으로 비유하고 있으나 모란에 대한 언급은 없고 ‘화왕’이라는 단어만 등장할 뿐이다. 왜 설총이 ‘화왕모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화왕계」중에 등장하는 화왕은 모란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즉 화왕이라는 것은 단지 ‘꽃(花)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꽃의 왕’은 모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 이름부터 기술해야 한다. “옛날에 화왕이 처음 오니”라는 구절에 화왕이 처음으로 오는 것이라면 ‘그 이름은 모란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정상이다. 화왕은 모란의 본명이 아니라 대명사이다. 대명사로 본명을 대신 쓰는 것은, 대명사와 본명의 긴밀한 관계는 널리 인식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691년에 모란이 신라에 전래된다 해도, 중국에서 당현종 시기에 널리 인식하게 되는 모란은 신라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화왕으로 모란을 대신하기 너무나 빠르다. 즉 이 시기에 모란이 유입되었다고 해도 설총은 화왕으로 모란을 대신 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화왕계」는 풍간 우화이다. “「화왕계」의 풍자는 의인적인 우화 수법을 통해서 신라 왕조의 부패한 정치와 혼암한 국왕으로서의 浮華한 생활상을 대상으로 하여 폭로풍유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말하자면 봉건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왕의 그릇된 정사와, 왕의 자격이 아닌 신문왕이 자연인으로서의 부패 타락한 속물성이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¹⁹⁾ 설총은 장미꽃과 백두옹을 의인화하여 왕에게 ‘親賢臣遠小

18) 이민수 역주, 『금호신화-화왕계』, 범우사, 2001. 123쪽.

19) 오상태, 앞의 책, 195쪽.

人’이라는 도리를 일러준다. 장미꽃은 미인으로서 붉은 입술에 백옥 같은 흰 이를 드러내고 하늘거리는 화려한 비단옷으로 요염하게 치장한 아침의 화신으로, 봄비로 몸을 씻고 맑은 바람결에 자적하며 향기로운 장막 속에서 베개를 받들고자 하는 향락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백두옹은 남자로 등장하여 “상자에 저장한 것 중에서 마땅히 좋은 약으로는 원기를 도와주고 독한 독침으로는 병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²⁰⁾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백두옹은 충신이다. 충신 백두옹의 말을 듣고 ‘화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설정을 통해서 설총은 신문왕도 깨달아야 한다고 풍간한다. 설총의 비유를 알아들은 신문왕은 “그대의 우화에는 실로 깊은 뜻이 있소. 부디 그 말을 글로 써서 임금 된 자의 경계로 삼게 하오.”라고 이 우화를 임금 된 자의 경계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무릇 임금이 된 분으로 간사하고 아첨한 자를 가까이하고 정직한 이를 멀리하지 않는 분이 드뭅니다”는 백두옹의 말에서 「화왕계」는 임금에게 경계하는 글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인간의 왕은 왕이라고 하면, 장미와 백두옹이 모두 꽃이기 때문에, 꽃들의 왕은 당연히 화왕이다. 즉 「화왕계」에서 나오는 화왕은 꽃(花)의 왕이다. 이 화의 왕은 모란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설총은 신하로서 왕을 얘기할 수 없으므로 화의 왕을 가탁하여 자신의 왕에게 풍간하는 것이다. 즉 「화왕계」에서 화왕은 바로 신문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화왕계」에서 등장하는 화왕은 남성이라는 점이다. 옛날부터 임금을 미인이나 꽃에 비유한 작품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화왕계」중의 화왕은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황제는 남자로 보인다. “문득 한 가인이 (...)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임금님의 높으신 덕을 듣자 향기로운 침소에서 모실까 하여 찾아왔습니다.”²¹⁾

20) 설총, 앞의 책, 410쪽.

21) 위의 책, 417쪽.

“忽一佳人 (...) 其名約薔 (...) 聞王之令德, 期薦枕於香帷”

장미라는 미인이 왕에게 잠자리를 모시겠다고 한 것이다. 장미는 아름다운 가인이라면 왕은 남자일 것이다. 또한 이어서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지만 가인은 얻기 어려우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는가?”²²⁾ 가인은 얻기 어렵다는 화왕의 말에서 화왕이 남성인 것이 다시 확인된다. 화왕이 여자라면, 가인인 장미는 잠자리에 모시겠다고 하지 않을 테고, 화왕은 가인을 얻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왕계」중의 화왕은 남성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색천향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란은 여성성을 지니고 있다. 천보(742~756) 초기에 이백은 「청평조(淸平調)」에서 “이름 높은 꽃과 경국지색 서로 어울리니 황제는 늘 웃음 띠운 채 바라보네”²³⁾ 함으로써 양귀비를 모란에 비유하였다. 이를 비롯해서 唐詩에서 모두 모란을 미인으로 동일시한다. 은문규(殷文圭)의 「趙侍郎看紅白牡丹因寄楊狀頭贊圖」에서 모란을 서시(西施)로, 서인(徐夤)의 「憶牡丹」에서 모란을 왕소군(王昭君)으로, 서응(徐凝)의 「詠紅牡丹」에서 모란을 여신 낙신(洛神)으로 비유하고 있다.²⁴⁾ 모란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유한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당시, 송사, 원곡에서는 모란을 남자로 묘사한 예가 없다.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에서도 “牡丹含露真珠顆, 美人得牌前過 (...) 花若勝於妾, 今宵花與宿”²⁵⁾라고 하여 모란을 여성으로 보았다. 미인인 자신보다 모란이 더 아름답다면 모란과 같이 살아보라는 말에서 말 수 있듯이 이 시에서 모란은 여성의 상징이다. 그 외에, 이규보는 「次諸君所賦山呼亭牡丹」라는 시에서 모란을 서시나 양귀비와 같은 미인으로 의

22) 위의 책, 418쪽.

“花王曰, 丈夫之言亦有道理, 而佳人難得, 將如之何”

23)李白, 『全唐詩』卷27-109, 中華書局, 1960, 570쪽.

“花傾國兩相歡, 常得君王帶笑看”

24) 殷文圭, 「趙侍郎看紅白牡丹因寄楊狀頭贊圖」, 『全唐詩』卷707, 8136쪽; 徐夤, 「憶牡丹」, 『全唐詩』卷708, 8151쪽; 徐凝, 「詠紅牡丹」, 『全唐詩』卷474, 5382쪽.

25) 이규보, 「절화행」, 『동국이상국집』, 경인문화사, 1997, 87쪽.

인화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선덕여왕 지기삼사」에서 모란을 여성인 선덕여왕을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설총의 「화왕계」에서 화왕은 남성으로 등장한다. 선덕여왕 시기에 모란이 유입되었다면, 선덕여왕을 통해서 신라에서 모란은 여성성을 획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설총은 「화왕계」에서 모란을 남성으로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점에서 「화왕계」에서의 화왕을 모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총이 「화왕계」를 지은 시기에 모란은 화왕으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모란은 화왕이다. 그러나 모란은 나타나자마자 화왕의 위치로 오른 것이 아니었다. 당나라 초기 모란을 묘사하는 시는 잘 보이지는 않는다. 일찍이 당나라 위현(韦绚)은 “모란꽃은 최근에 생긴 것이고 前朝 시집에서 모란꽃이 나오지 않았다.”²⁶⁾ 모란이 당나라 이전에 詩에 들어가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모란이 처음으로 문학세계에 들어간 것은 무척천의 시녀 상관소용(上官昭容, 664~710)의 “勢如連璧友 心似臭蘭人”²⁷⁾라는 시구이다. 이 시기에 모란에 대하여 전용하는 수사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소용은 모란의 아름다움을 옥과 난초에 비유하였다. 그 다음으로 盛唐 시기에 들어서 이백(李白, 701~762)의 시에서 모란꽃이 보이기 시작한다. 모란 전용의 시어도 이백부터 사용된 것이다. 이후에 모란의 아름다움을 수사하는 단어가 많아진다.²⁸⁾

26) 韦绚, 『劉賓客嘉話錄』, 『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2000, 800쪽.

27) 上官昭容, 「句」, 『全唐詩』卷5-60, 中華書局, 1960, 95쪽.

28) 모란 시에 관하여 아래 문헌과 논문을 참조.

『全唐詩』, 中華書局, 1960; 王瑩, 「論唐宋牡丹詩詞的政治文化意蘊及其表現手法」 『文化遺產』, 2011. 4; 郭紹林, 「說唐代牡丹」 『洛陽工學院報』, 2001. 3; 方麗萍, 「論牡丹欣賞與唐代社會文化心理變遷」, 『寧波大學學報』, 2011. 1; 薛亞康 趙坤, 「唐詩牡丹意象與世子文化心態」 『牡丹文學月刊』 2010. 4; 付梅, 「論洛陽牡丹及其文化意義」, 『閩江學刊』 2011. 12.

清平调²⁹⁾

一枝紅豔露凝香, 한가지 모란꽃이 이슬 머금고 향기가 영긴듯
雲雨巫山枉斷腸. 구름과 비가 되어 무산에서 애를 끊도다.
借問漢宮誰得似, 빌리어 물어보노니 한나라 궁전에 누가 이와 비슷할 수
있을까?
可憐飛燕倚新裝. 사랑스러운 조비연이 새롭게 치장했을 때일까?

名花傾國兩相歡, 이름 높은 꽃과 경국지색 서로 어울리니
長得君王帶笑看. 황제는 늘 웃음 띤 채 바라보네.
解釋春風無限恨, 봄바람의 무한한 한을 풀어 보내며,
沉香亭北倚欄杆.沉香정 북쪽 난간에 기대여 있네.

천보(742~756)초기 당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밤 새워 관상하고 이백에게 명하여 시를 짓게 한 것이다. 이백이 지은 이 「청평조(淸平調)」는 모란이 국화로 오르게 하는 데 기초를 다졌다. 이 시에서 이백은 한(漢)나라 미인 조비연(趙飛燕)도 새로 치장해야 그 용모가 모란과 비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이백이 경국지색의 양귀비와 요염한 모란을 병치시킴으로써 미인과 꽃이 서로 비추어 그 아름다움은 극에 달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백의 「청평조」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 널리 유전되었다. 이에 따라 모란의 아름다움이 황궁을 넘어 민간으로 퍼졌다. 모란을 ‘국색천향’으로 찬송하는 것은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 772~842)부터이다. 그는 「상모란(賞牡丹)」이라는 시에서 “唯有牡丹真國色,花開時節動京城”³⁰⁾하여 처음으로 모란을 국색이라고 하였다. 이정봉(李正封)의 「모란시」는 ‘국색천향’이라는 단어의 유래이다. “天香夜染衣,國色朝酣酒”³¹⁾라는 시구를

29) 李白, 『全唐詩』 卷27-109, 中華書局, 1960, 570쪽.

30) 劉禹錫, 「賞牡丹」, 『全唐詩』 卷365, 中華書局, 1960, 5382쪽.

31) 李正封, 「牡丹」, 『廣群芳譜』 卷12. 上海古籍出版社, 1991, 764쪽.

통해서 모란은 국색천향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그리고 피일휴(皮日休, 839~902)의 「모란」에 이르러 모란은 화왕으로 오르게 된다.

牡丹³²⁾

落盡殘紅始吐芳,	봄의 잔홍이 지고 난 다음에 꽃이 피우니
佳名喚作百花王。	아름다운 그 이름은 백화왕이라
競誇天下無雙豔,	천하무쌍의 아름다움을 서로 다투어서
獨立人間第一香。	이 세상에 으뜸가는 향기를 홀로 차지하였네

이 시에서 시인은 “천하무쌍”, “인간제일” 등 화려한 시어를 아끼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모란을 백화왕(百花王)으로 부각시켰다. 피일휴의 이 시를 통해서 모란은 지존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모란은 이백, 유우석, 이정봉 등 시인들을 통해서 명화, 국색천향을 거쳐 화왕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화왕’이라는 것은 모란이 나타나자마자 부여된 것이 아니라 문인들의 음송 등 문학적 표현을 통해 모란을 ‘화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백, 유우석과 이정봉은 8세기에서 9세기의 시인들이다. 이백은 701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명화이라는 개념은 그 이후 널리 인식된 것이 분명하다. 유우석을 보면 국색천향이라는 단어는 8세기 후반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691년에 신라에서 모란이 어떻게 ‘화왕’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691년에 모란이 화왕이 되었다면 벌써 많은 글과 시가 창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에 모란 관련 시는 보이지 않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신라시대에 「화왕계」에서 화왕이 등장하지만 다른 문학작품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의심해 봐야 할 일이다. 비록 그 시대에 상류층에 한하여 모란이 알려져 있었다 해도, 설총이 알았다면 다른 귀족이나

32) 皮日休, 「牡丹」, 张英, 王士禛编, 『渊鉴类函』 45卷, 「花部 牡丹五」.

문인들이 모를 리가 없다. 보잘 것 없는 꽃도 아니고, 모란은 존귀한 ‘화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모란에 관한 글이나 시가 남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화초는 고대 문인들의 창작 소재이다. 난초, 국화, 매화 등은 일찍부터 시인이 음송하는 대상이 되었다. 모란이 8세기 이전에 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관상용으로 재배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모란이 고려시대(918~1392)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 내려와서 모란에 관한 기록이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문헌에 자주 나타난다. “(예종, 임신7년, 1112년) 여름4월에 대궐 안의 사루에 거둥하여 모란시를 짓고, 유신에게 명하여 짓게 하고 피륙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현종이 일찍이 누 앞에 모란을 손수 심었더니, 덕종으로부터 숙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화시(모란을 읊은 시)가 있고, 또 종신으로 하여금 짓게 하였다.”³³⁾ 그리고 “고려시대 고분에서 발굴된 부장품인 화개운 등에서는 모란꽃 문양이 발견되고 있다. 이로 보면 고려시대의 귀족들은 사후에도 모란꽃을 좋아하고 부귀를 누리기를 바랐던 모양이다.”³⁴⁾ 고려 현종이 1009~1031, 덕종이 1031~1034년 그리고 예종은 1105~1122년에 재위하였다. 현종이 손수 모란을 심었다는 것은 모란의 귀함을 예증한다. 매우 귀하고 얻기 힘든 것이 아니라면 왕이 손수 심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덕종과 예종 등이 모란을 관상하여 시를 짓게 하는 것은 당나라의 현종을 연상케 한다. 이는 새로 나온 아름다운 꽃에 대한 신선감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691년에 모란이 화왕으로 여겨졌다면, 몇 백 년 후, 고려시대에 이르러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고려의 왕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 손수 심고 관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왕들이 모란을 그렇게 귀하게 대

33) 『고려사절요』, 민족문화추진회, 1968, 403쪽.

34)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넥서스BOOKS, 2004, 184~185쪽.

하는 것 또한 고려 고분에서 부장품에 모란 문양이 발견된다는 것은 고려시대 모란꽃이 왕실 차원에서 유행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모란이 문학작품에 들어간 것도 고려시대부터이다. 문일평은 “고금을 통하여 모란에 대한 음송이 많기로는 고려의 이규보가 제일인 이 될 것이니 그 문집을 뒤져보면 맨 모란시이로다”고 하여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모란 시를 많이 창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 이인로(李仁老, 1152~1220), 민사평(閔思平, 1295~1359)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모란 시가 많이 나온 것은 모란꽃의 성행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인식되어야 문학 작품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고려에 이르러 모란은 완전히 왕족과 귀족들의 꽃으로 자리잡았다.”³⁵⁾ 현종, 예종 등 왕의 애호가 문인들로 하여금 모란 시를 짓게 한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서 모란꽃은 고려시기 경에 이르러 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유입된 모란을 691년에 어떻게 화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모란의 고향인 중국에서도 화왕으로 칭하는 것은 9세기 중반부터이다. 따라서 691년에 신라에서 모란은 화왕으로 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하듯이 이 우화의 목적은 “풍간(諷諫)”이다. 화왕의 이름을 빌려 신문왕에게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일러주는 것이다. 따라서 「화왕계」중의 화왕은 모란이 아니라 단지 ‘화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화의 왕’은 바로 신문왕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화왕’이 남성인 것에서 확인된다, 또한 설총 시기에 모란에 관련 기록이 없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야 모란에 관련 기록이 나오는 것에서 「화왕계」의 화왕은 모란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모란의 고향인 중국에서 691년경에 모란은 황궁에

35) 기태완, 『꽃을 들여다보다』, 푸른지식, 2012, 160쪽.

한하여 재배했을 뿐 널리 인식되지도 못하였다. 이 시기에 모란을 묘사하는 시는 상관소용의 시 한 수뿐이었고 8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중국에서 모란을 묘사하는 시가 많아지는 것이다. 중국에서 당현종 시기(712~756)에, 한국에서 고려 시대(918~1392)에 모란은 널리 인식하게 되었다. 모란이 유행하는 시기와 「화왕계」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본 논문은 설총의 「화왕계」 중에 나타난 화왕이 모란이 아니라고 본다. 「화왕계」 중의 화왕을 모란으로 보는 것은 후세 사람들의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5. 선덕여왕 모란일화와 「화왕계」: 결론을 대신하여

후세 사람들은 「화왕계」 중의 화왕을 모란으로 착각한 것은 선덕여왕 모란일화 때문일 것이다. 이운호의 「서라벌의 꽃나무 이야기」와 기태완의 『꽃을 들여다보다』 등에서 모두 선덕여왕 모란일화를 역사적 진실로 보고 모란이 선덕여왕 시기에 유입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화왕계」 중의 화왕을 모란으로 보게 된 것이다. 기타 「화왕계」를 연구하는 논문에서 모두 화왕을 모란과 동일화하였다.

선덕여왕 모란일화는 『수이전』,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수이전』은 9세기 신라 때 편찬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박인량(?~1096)이 이를 증보한 것으로 확인된다.³⁶⁾ 그리고 『삼국사기』는 1145년에, 『삼국유사』는 1284년에 편찬되었다. 모란일화를 다룬 저자들이 모두 고려시대 사람인 것이다. 또한 선덕여왕과 관련된 「심화소탑(心火燒塔)」이라는 일화도 『수이전』에 수록되어 있다. 『수이전』에 선덕여왕과 관련하여 두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고려시대 초기에는 선덕여왕의 역사적인 위치가 높

36) 곽승훈, 「수이전의 찬술본과 전승연구」, 『진단학보』 111집, 2011, 45쪽.

게 평가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기에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화왕 모란은 여왕의 상징으로 한국의 첫 번째 여왕인 선덕여왕에게 적당한 비유이다.

그리고 선덕여왕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설총이 「화왕계」라는 우화를 남겼다. 이 우화에서 설총은 화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고려 시대에 모란꽃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화왕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문인들에게 설총의 「화왕계」에서 등장하는 화왕은 당연히 모란이다. 그것은 『수이전』에 수록된 선덕여왕 모란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꽃은 요염하고 귀티가 있어 비록 화왕이라고 불리나, 그림에 벌고 나비가 없으니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³⁷⁾ 이는 『수이전』에서 선덕여왕이 모란을 화왕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선덕여왕이 모란을 화왕으로 불렀다면 선덕여왕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태어난 설총이 쓴 「화왕계」에서의 화왕은 당연히 모란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화왕계」중의 화왕을 모란으로 오해하는 것은 『수이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이전』이 후부터 「화왕계」중의 화왕이 모란으로 오해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화왕계」에서 화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삼국사기』과 『삼국유사』에서 모란일화가 기록되어 있으며, 『수이전』에서 기록되는 선덕여왕 모란일화에는 모란과 화왕을 동일화하였다. 「화왕계」에서 등장한 화왕을 모란으로 오해하게 된 것은 바로 선덕여왕 모란일화에 대한 기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모란의 발전사와 한국으로의 유입을 통해서 보면, 「화왕계」에서 등장하는 화왕은 모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7) 이대영 편역, 『수이전』, 소명출판, 2013, 96쪽.

[摘要]

通過牡丹看善德女王牡丹軼話和「花王戒」

(李冬梅)

金富軾在『三國史記』里記述了唐太宗向真平王贈了牡丹繪畫以及一些牡丹種子，一然的『三國遺事』里也記錄著相似的事情。而且，在薛聰的「花王戒」里出現了牡丹這個單詞。很多的研究者都把花王戒里的花王解釋為牡丹。

但是，仔細閱讀「花王戒」，就會發現，這裏面出現的花王並不是指牡丹。究其原因，首先，「花王戒」里只出現了花王，並沒有出現牡丹這個單詞，其次，花王戒里的花王是男性，而不論中國還是韓國，牡丹都具有女性性。在牡丹的故鄉中國，經過李白、李正封等的吟誦，牡丹于19世紀才成為花王。而在691年的新羅牡丹是怎麼成為花王成為一個很大的疑問。如果考慮到「花王戒」是一則諷諫寓言的話，本文認為，「花王戒」里的花王不是指牡丹，而僅僅是花之王而已。

那麼，後世的人為什麼會把花王戒里的花王看做是牡丹呢？這與善德女王牡丹軼話有密不可分的關係。善德女王牡丹軼話同時收錄在『殊異傳』、『三國史記』、『三國遺事』里。『殊異傳』由樸人亮增補，『三國史記』、『三國遺事』的作者也是高麗時期人。在他們生活的高麗時期，牡丹在中國已經成為花王，在韓國也得到了廣泛的認識。薛聰的「花王戒」里用了花王這個單詞，對高麗時期的文人來說，花王就是牡丹。可以說，這就是因為花王這個單詞而產生的歷史性的誤會。

关键词：牡丹，花王，「善德王知幾三事」，「花王戒」

☆ 참고문헌

- 김부식 편, 이재호 옮김, 『삼국사기』, 서울출판사, 1997.
- 이재호 역, 『삼국유사』, 광신출판사, 1993.
- 이대영 편역, 『수이전』, 소명출판사, 2013.
- 강재철, 「선덕왕 지기삼사' 설화의 연구」, 『삼국유사의 문화적 탐구』, 이회, 2008.
- 기태완, 『꽃을 들여다보다』, 푸른지식, 2012.
- 문일평, 「史上에 나타난 꽃 이야기」, 『호암전집』3, 조선일보사, 1994.
-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 일지사, 2004.
- 이규보, 「절화행」, 『동국이상국집』, 경인문화사, 1997.
- 이민수 역주, 『금호신화-화왕계』, 범우사, 2001.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넥서스BOOKS, 2004.
-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1989.
- 『全唐诗』 卷27-109, 中華書局, 1960.
- 舒元與, 「牡丹賦」, 『全唐文』 卷727, 上海古籍出版社, 2002.
- 郭紹林, 「說唐代牡丹」 『洛陽工學院報』, 2001.3.
- 柳宗元, 「宋單父種牡丹」, 『龍城錄』, 『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2001.
- 李肇, 『唐国史补』 上, 上海古籍出版社, 1957.
- 段成式, 『酉陽雜俎』 前集 卷19, 『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2000.
- 韦绚, 『劉賓客嘉話錄』, 『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2000.